

사 회

# ‘살인 폭염’ 서민은 겹고통

인력대기소 불경기 겹쳐 일감 ‘뚝’  
폐지·고철 줘던 노인들 작업 중지  
야채·과일 빨리 상해 노점상 ‘울상’

지난 31일까지 12일째 계속되는 살인적인 무더위 때문에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폐지를 팔아 생활하는 극빈층 노인, 일용직 근로자, 노점상 등 사회취약계층의 울 여름 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5~9월이 성수기인데도 올해는 무더위 때문인지 일감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아예 공사를 중단한 현장도 늘고 있고 구직자를 역시 발걸음을 끊고 있다. 광주시 남구 양림동 한 인력대기소 점포 소장(55)은 “예전에는 하루

20~30여명 정도는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며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뿐 계속 휴업 상태”라고 밝혔다.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던 일용직 근로자 김완진(47·가명)씨는 “무더위로 공사가 중단되는 바람에 그나마 간간히 나오던 일감마저 구하기 힘들어졌다”며 “10여 일이나 일감을 찾지 못해 차라리 시골에 내려가 농사일이라도 도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나 시장 인근 노점상들도 20여년간의 폭염이 야속하기만 하다. 한참 논·밭에 심어 놓은 야채 등을 거둬, 시장에 내다 팔아야하는데 더운 날씨 때문에 작업하기도 힘들

다. 애써 해놓은 농작물들이 하루만 지나면 시들어 버린다. 실제로 남광주시장 시장 앞과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 노점상들의 수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15일 이전에 비해 절반 가량이 준 상태이다. 더위가 한창인 오후에는 빼빼물 노점상 자리가 드문드문 비어 한가해지기까지 했다. 노점상 박준영(64·가명)씨는 “정말 지독한 더위다”며 “새벽에 밭에서 푸성귀를 수확해 오는데 작업도 힘들고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어 매일 나오던 것을 이틀에 한번으로 줄였다”고 한숨 지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더위 식히는 소방대원  
지난 31일 오후 광주시 남구 소촌동 광주소방학교에서 열린 ‘소방전술 경연대회’에 참가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경연을 마친 뒤, 소방호스로 머리 위에 물을 뿌려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헌배기자 choi@kwangju.co.kr

## 태국 가려던 관광객 휴가 망쳤다

방콕 전세기 기기 교체로 운항 취소  
무안공항 여행객 150여명 항의 소송

무더운 여름을 피해 방콕에서 휴가를 즐기려던 관광객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지난 31일 오후 방콕에서 무안공항에 도착해 다시 태국으로 출발하기로 했던 태국 PC에 소속 전세기가 현

지에서 기기 교체 등의 이유로 운항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공항에서 출발 2시간30분 전이야 이 소식을 전해들은 관광객들은 강하게 항의했지만 결국 ‘여름 휴가’를 망쳤다.

무안공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30분께 관광객 등 150여명을 싣고 태국 방콕으로 향하기로 했던 태국 PC에어 전세기편이 정비불량 등으로 결항했다. 관광객들을 모집한 광주의 한 여행사측은 당초 정비가 늦어져 출항이 지연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오후 5시가 되자 여행 일정 취소로 관광객들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들 관광객들은 1인당 100만원을 내고 지난 31일 무안공항을 출발, 3박 5일 일정으로 방콕·파타야 등을 여행하는 상품을 구입했다. 이 여행사 관계자는 “전세기 편이 기기 교체 등의 이유로 결항되었으며 절차에 따라 환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관광객들은 “태국 저가항공사가 관광객 수가 부족하자 일부러 기기 교체를 이유로 결항시킨 것 아니냐”며 “가족들과 어렵게 해외 여행을 계획했는데 어처구니 없다”고 반발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미성년자 성폭력범 징역 10년 이상 구형

검찰이 아동·장애인을 노린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동등 권리와 재범 우려가 있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31일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한명관 대검 형사부장(검사장) 주재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간부와 대학교

수, 한국성폭력상담소 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성폭력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의견을 모았다. 검찰은 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을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성폭력사범을 기소할 때 전자발찌, 약물치료 대상자인지 확인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13세미만 여아·장애인 성폭행범 시효 폐지

2일부터 만 13세가 안 된 여아나 여성 장애인을 강간(준강간)한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강제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교사, 학원 강사 등은 ‘업무상 위력행사, 학원 강사’ 등의 ‘업무상 위력행사’ 친고죄를 폐지해 경찰의 검거나 제3자에 의한 고발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직군도 기존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종사자에서 의료인, 가정방문 학습지 교사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 이별 통보에, 빗에 쫓겨...

광주서 신변 비관 있던 자살

광주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자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30일 오후 4시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한 빌라에서 A(24)씨가 계단에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여자친구(27)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낙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산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A씨가 전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이 빌라를 찾아왔다가 만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앞서 이날 오전 8시께에도 광주시 서구 관천동 한 사우나 건물 12층 옥상에서 B(43)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사우나 관리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빗에 쫓겨 전곡을 떠돌며 생활하던 중 신변을 비관해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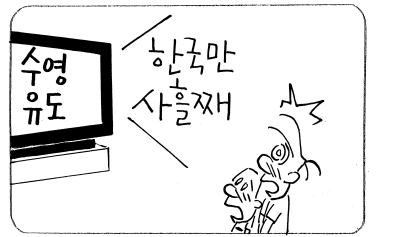
## 산 속에 도박장 개설한 조폭

주부 등 모집 산도박  
국제PJ와 일당 검거

주부나 택시기사 등을 모집해 광주 인근 빈 식당을 빌려 도박관을 열어 경찰에 불잡혔다. 이들 가운데는 수억원을 탕진한 가정주부도 있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1일 도박개장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국제PJ와 조폭폭력배 한 모(37)씨 등 9명을 도박개장 및 폭행 등 혐의로 입건하고, 주범인 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총책·모집책·운반책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지난해 광주 인근 빈 식당 5곳을 하루 20~30만원에 빌려 가정주부, 택시기사 등 수십 명을 모집해 수 천만원의 판돈을 걸고 ‘산도박(두 줄로 늘어서 높은 수의 카드를 받는 쪽이 상대방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도박)’을 하도록 도박장을 개장한 혐의다. 또 한 씨 등은 지인의 피인에 빠져 도박한 뒤 약 3억원을 잃은 김 모(여·47)씨가 사기도박이라고 항의하자 협박·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 나원침 (8621) 김장두



## CNC 수사 공안부 배당 서울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50) 의원이 운영한 선거 홍보대행사 CNC커뮤니케이션즈(CNC)의 ‘선거비용 부풀리기’ 의혹 사건을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진보당 관련 사건이 공안부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스크린 하는 게 좋고, (CNC 사건이) 선거비용 문제이니 선거 담담 부서가 맡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훤친 택배 알고보니 비키니

○편의점에 보 관된 남의 택배가 욕심 나 슬쩍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달미. ○지난 3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이모(여·28·학원강사)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55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의 한 편의점에서 A(여·25)씨 앞으로 배달돼 보관중인 10만원 상당의 비키니 수영복 1벌이 든 택배상자를 틀러 들고 나왔다는 것. ○이씨는 경찰에서 “여성 의류인 줄 알고 탐이나 훤쳤는데 꺼내보니 비키니 수영복이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경찰청지정 운전면허 시험장**

트레일러 대형 1,2종보통 2종소형(오토바이)

**운전면허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광주 최대의 규모 ▶ 깨끗한 환경 ▶ 친절한 강사진

학원에서 교육한 차량으로 주5회 장내·도로 자체시험 실시

- 새벽반, 야간반, 주말반 운영
- 2012년 7월 부터 수강료에 부가세 과세확정
- 교재무료 배부
- 11월부터 도로주행 시험강화로 수강료인상 예정
- 셔틀버스 운행

**주|영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

위치: 신가동 사거리 분향교회 옆, 중앙아동병원 앞 ☎062-951-5100